

종합·해설

李당선자, 대기업정책 '청사진' 공개

재벌 맘껏 뛰게 하고 中企 집중 지원

출생제 폐지·금산법 분리·규제완화 등 포함

중기엔 공공구매제 확대·흡소빙 채널 개설

"이 시대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간섭할 것도 없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한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나를 '친(親)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친기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대기업을 바라보는 이 당선자의 시각에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있다.

다시 말하면 국내 대기업들은 이미 세계에서 경쟁하면서 자생력을 갖추고 있으나 참여정부 들어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하고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기업을 도와주는 기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의 첫 '경제행보'로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자신의 정책기조를 설명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대기업이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되살리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기업관련 정부서비스의 글로벌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 등의 '선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는 우선 기업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경제관련 규제가 1천102건이나 신설된 데 비해 폐지, 완화된 것은 468건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규제 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에서 '네거티브 방식'(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원칙 완화,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등은 이 당선자가 법치화 등의 '선물'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인 20%로 인하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 투자와 고용유력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기업의 경우 규제완화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내놓은 기업공약 가운데 대기업 관련은 규제완화, 투자촉진 등 원론적인 수준인데 비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제도 확대, 중소기업 전용 흡소빙 채널 개설, 중소기업 네트워크론 확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도 이런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경제인간담회에서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함께 이 당선자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운동 법치주의 확립 해 주세요”

■ 재계 총수들 뭘 부탁했나

비정규직법 개정·수도권 규제완화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첫 만남에서 재계 총수들이 가장 힘주어 언급한 개선과제는 역시 노사관계였다.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 당선자와 경제인 간담회가 끝난 후 간담회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브리핑한 주호영 당선자대변인은 기업인들이 새 정권에 대한 기대와 함께 노사관계 및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주문을 내었다고 전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참석 기업인들은 “불법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과잉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노동운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이 당선자에게 건의했다.

기업인들은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사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규제 가운데는 수도권 규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업인들은 “공정거래법 등 수도권규제가 외자유치 및 기업의 투자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또 “차기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계는 수도권 규제 이외에도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등을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지적하며 완화를 요구해 왔으나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이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자와 기업인 간 첫 회담에서 노사관계와 수도권 규제가 주요 언급됨으로써 앞으로 인수위나 새 정부 차원에서도 두 문제가 중점적인 개선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를 대표해 발언한 조석래 전경련연맹회장 회장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해 노사문제 등이 법에 따라 규율되는 관행의 정착을 촉구했다.

조 회장은 또 “각종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경련은 이 같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한 보고서 형태의 건의문을 인수위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업인측의 제안으로 당선자 및 인수위측과 원칙적으로 설치에 합의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조사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재계, 내년 투자·고용확대 나선다

삼성 25조, 현대·기아차 11조, LG 10조 투자

SK 8조·금호아시아나 3조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그룹들이 내년 일제히 투자와 고용확대에 나선다.

주요 대기업들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의 ‘경제인 간담회’를 계기로 이미 가닥을 잡은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확보하고 있는 투자여력에 맞춰 내년 투자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내년 사업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내년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내년 국내외에서 25조원 가량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그룹은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투자,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그룹도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당선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기 앞서 투자계획을 질문받고 1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대답했다.

정 회장은 “제철소 건설에 5조2천억원, 현대·기아차 연구개발에 3조5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며 나머지는 계획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LG그룹은 내년에 10조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는 올해만 현재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7조원 정도를 투자했으니 내년에는 올해보다 3조원 정도 투자를 늘리는 셈이다.

SK그룹은 내년에 투자규모를 올해의 7조원에서 8조원 가까이로 10% 가량 늘릴 계획이다. SK그룹은 에너지, 화학 분야 고도화사업 개발과 신

규사업 개발 등에 주력하는 한편 자원개발 분야에도 투자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올해 3조5천억원에 비해 14% 늘어난 4조원 가량을 내년 투자규모로 설정했다. 부문별로는 유통에 1조5천억원, 중화학·건설에 1조5천억원, 식품·관광·서비스에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GS그룹도 올해 2조3천억원에 그쳤던 투자총액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내역을 조정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보다 28.3% 늘어난 2조9천2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정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주로 연구개발과 교육, IT 분야, 사회공헌 등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또 일자리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정경유착 단어 사라져”

이명박 당선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8일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없었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재계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12월 19일 (대선일) 이후 기업인들이 권력에 대해 부담이 없는 세상이 됐다. 기업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서로 부담없이 선거를 치렀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자 많이 해주세요” “규제 개혁해 주세요”

■ 李당선자-재계 총수 만남 '화기애애'

‘CEO 대통령’과 재계의 첫 만남. 재계 총수들의 표정은 기대와 흥분으로 고조된 모습이었다.

28일 이명박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의 만남인 ‘경제인 간담회’가 열린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는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자리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기대감을 함뿍 받고 있는 이 당선자와 이근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모인 ‘빅 이벤트’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와 간담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룹 총수

들의 표정은 밝았다. 전경련회관 20층 행사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끌어갔고 간간히 파란대소하는 소리도 새 나왔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회동 후 “당선자는 기업들에 투자를 활발히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업들은 규제를 개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전했다.

조 회장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다. 재계로서 이렇게 뜻깊은 날이 없다. 양측은 언제든지 모여 힘을 합하기로 했다”며 “서로 정경유착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다른 정부가 와도 후퇴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인동상실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것만 골라 물건들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시장남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보부동산컨설팅
토지매매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세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세

상무리드공인중개사
건물
토지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전세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광주-전남권 토지 건물 구합
수완택지지구 200평
분양·임대
첨단중양메디칼센터 (2008년 2월 준공)
53평
1층 58평 편의시설
2~6층 각 166평 병의원
7층 70평 모던업종가능
건물 28억
광주-장성권 토지 건물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천만원~1000만원)
062)973-9177, 010-3625-1362
현단지구 국민은행 투주점으로 오십시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부동산실무
컴퓨터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주택관리사
2개월
매월초
2개월
매월초
2008년도 대비 6개월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컴퓨터
교육과정
교육기간
개강
재직자 및 일반인
컴퓨터활용실무
2개월
12월 3일
CAD
2개월
매월초
워드실기
1개월
수시
컴활실기
1개월
수시
정보회기초 1.2
5주
매월초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습서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겨울방학 대 특강!!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무, 세무, 기획, 인사, 법원, 검찰, 교정, 교호, 소방, 전산, 지적, 토목, 건설, 물리, 환경, 통계, 기타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2일 주·야 (휴일)반모집 (합계 수 앞)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kjkimyoung.co.kr
일반대/ 사범대/ 약대/ 한의대
Final Course 개강 12월 17일
문제풀이반 6주완성
이론과정반 6주완성
편입이란?
12월 17일 개강
학력년 대비반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227-8088